

## 看板없는거리

停車場 푸랏쑈에

나렸을때 아무도없어、

다들 손님들뿐、

손님같은 사람들뿐、

집집마다 看板이없어

집 찾을 근심이없어

빨가케

파라케

불붓는文字도없이

모퉁이마다

慈愛로운 헌 瓦斯燈에

불을 켜놓고、

손목을 잡으면

다들、어진사람들

다들、어진사람들

봄、여름、가을、겨울、

순서로 돌아들고、

一九四一、

## 간판 없는 거리

정거장 플랫폼에

내렸을 때 아무도 없어

다들 손님들뿐

손님 같은 사람들뿐

집집마다 간판이 없어

집 찾을 근심이 없어

빨강게

파랑게

불붓는 문자도 없이

모퉁이마다

자애로운 헌 와사등에

불을 켜놓고

손목을 잡으면

다들, 어진 사람들

다들, 어진 사람들

봄, 여름, 가을, 겨울,

순서로 돌아들고

1941.